

“이번엔 4년 준비도 끝... 후회 없이!”

최민정, 쇼트트랙 女 1500m서 이번 대회 세번째 메달 도전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상남시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마지막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최민정은 15일 베이징 캐피털 인더어 스타디움에서 대표팀 동료들과 훈련을 소화했다.

이번 대회 중 마지막 훈련이다. 이번 대회 5개 종목에 출전하는 최민정은 4종목 경기를 끝냈다. 이제 남은 건 16일 열리는 여자 1500m 하나다.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다. 최민정은 2018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1500m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제는 2연패에 도전한다.

“1500m에서 계속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욕심을 드러낸 최민정은 “한국이 장거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책임감도 갖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두 개(여자 1000m, 여자 3000m 계주)를 손에 넣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골목길 시간을 보냈기에 더 값진 성과다.

대표팀 동료들을 합당한 식욕(서울시청)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큰 상처를 입었다. 발목과 무릎 등 부상까지 겹쳐 컨디션 조절에도 애를 먹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달렸고, 시상대에 섰다. 최민정은 “이제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있다. 내일이면 내가 4년간 준비했던 것도 이제 다 끝나기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털어놓았다.

이번 대회 중에는 최민정이 팬에게 보낸 편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최민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며칠 후 등기우편으로 답장이 왔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계주 3000m 결승, 은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 최민정, 김아령이 기뻐하고 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최민정이 오히려 팬에게 응원의 답장을 했다는 사실이 큰 주목을 받았다.

편지 이야기가 나오자 쑥스러워한 최민정은 “올림픽을 한창 앞두고 있을 때 받았다. 그분이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내 경기를 보고 힘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 버킷리스트로 저하고 사진 찍는 걸 원하던 내용이 있었다”고 떠올렸다.

만나지 못해 사진은 함께 찍을 수 없지만, 진심만큼은 전하고 싶었다.

최민정은 “사진을 헤더하면 힘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팬들은 내

경기를 보고 힘을 냈다는 내용을 보고 나도 힘을 얻어서 보답해드리고 싶었다”며 미소지었다.

모두의 응원 속에 이제는 1500m 금메달리스트의 자존심 지키기에 나선다.

공교롭게도 이번 대회 여자 500m(아리아나 폰타나·이탈리아), 1000m(수잔 슐팅·네덜란드)는 2018 평창 대회 금메달리스트들이 모두 제패했다.

이제 눈길은 평창 대회 1500m 정상에 섰던 최민정에 쏠린다.

“상황상 나만 잘하면 되는 것 같다”며 웃은 최민정은 “변수도 많은 종목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보여주고 후회 없이 경기를 끝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금까지 올림픽 메달 4개(금 2개, 은 2개)를 얻은 최민정이 남은 여자 1500m에서 메달을 추가하면 쇼트트랙 최다 메달리스트 타이 기록을 이룬다. 전이경(금 4개, 동 1개), 박승희(금 2개, 동 3개)가 메달 5개를 가지고 있다.

최민정은 “사실 그건 생각 못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 2개를 땀는데, 메달 자체가 나에겐 너무 소중한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다”며 “내일 1500m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진심으로”라고 의지를 다졌다.

/뉴시스



15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스노보드 빅에어 결선에서 맥스 패럿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쇼트트랙 잠잠해졌지만

이번엔 스노보드 판정 논란

스노보드 男 빅에어 예선서

같은 기술에 다른 점수 매겨

이번엔 스노보드에서 판정 불만이 나왔다. 지난 14일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빅에어 예선에서 똑같은 기술에 다른 점수가 매겨졌다는 논란이 나왔다.

미국의 레드 제라드는 미 ESPN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 스위치 백사이드 1620는 75.50점을 받았는데 같은 기술을 한 맥 모리스는 81.50점을 받았다”며 판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같은 기술에서 6점 차가 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7일 열린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에서도 판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현역임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딴 맥스 패럿(캐나다)의 점수에 대한 논란이다. 심판들은 그가 공중 동작에서 보드를 손으로 완벽하게 잡았다고 판정했지만 중계화면으로 보면 무릎을 잡고 넘어간 것으로 보였다.

동메달을 딴 마이크 맥모리스(캐나다)는 해당 판정에 항의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정이 번복되지 않았다.

패럿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고 국제스키연맹(FIS)도 오심을 확인했지만 메달은 그대로 수여했다.

스노보드 판정 논란이 계속되자 FIS 스노보드 채점 관계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심판들이 선수들의 기술을 면밀히 볼 수 있는 리플레이 영상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FIS는 14일 빅에어 예선에서 나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뉴시스

창단 16년 만 ‘파격 변화’

전주시민축구단의 2022시즌 유니폼이 공개됐다. 15일 전주시민축구단에 따르면 부미스 포츠와의 협업을 통해 홈 유니폼을 상·하의 반색으로 제작했다. 이는 구단 창단 16년 만의 파격적 변화다.

이와 함께 원정 유니폼은 상·하의 흰색이며, 셔츠에는 노랑색을 사용했다.

또 골키퍼(GK)의 홈 유니폼은 형광 연두색이고 원정에는 파랑색, 셔츠에는 빨강색을 사용해 강렬한 이미지를 더했다.

특히, 유니폼 전면에 국가 관광기념도시 전주 이미지를 넣어 홍보 효과도 극대화했다.

그리고 유니폼 상의 전면 하단을 풍남문으로 그래픽 처리해 2022시즌 전주시민들과 함께 뛰는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소매 부분에는 전라북도 도정 이미지를, 상

전주시민축구단 올 시즌 유니폼

유니폼 상의 하단 풍남문으로

그래픽 처리해 ‘시민들과

함께 뛰는’다는 메시지 담아

의 뒤편 하단에는 2023 전북 아태미스터스대회도 새겼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후원하고 있는 고은미래(진료과목 피부과) 로고는 상의 뒤편 상단에 새기고 경기에 나선다.

전주시민축구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시즌 유니폼 제작을 시작했고, 전주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



올 시즌 전주시민축구단 유니폼 (왼쪽 필드 홈, 오른쪽 GK 홈).

했다”며 이번 유니폼은 통풍이 뛰어나고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등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세심하게 제작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 포항 강상우 영입 철회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포항 스틸러스의 수비수 강상우 영입 계획을 철회했다.

전북은 15일 “1월5일 포항과 이적협의서를 체결한 후, 선수 측과 한 달가량 연봉협상을 진행했으나 기본급과 수당 등 연봉 조건에서의 협상을 좁히지 못해 포항과 협의를 통해 영입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2014년 포항에서 데뷔한 강상우는 2020년 상주 상무(현 김천에서 7골 5도움을 올리며 두각을 나타냈다.

전역 이후 포항에 복귀해 5골 15도움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4골 8도움을 기록, K리그 1(1부) 베스트11 수비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은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강상우 영입을 추진했으나 강상우가 중국 슈퍼리그 베이징 궈안 이적을 추진하면서 철수를 결정했다. 강상우는 포항 훈련에 합류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은 “최근 개정된 프로축구 연맹의 규정에 따라 선수와 협의를 거친 후 양 구단 간 이적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후 선수가 해외 구단과 이중 협상을 진행한 정황과 돌연 협상 종료로 통보해오는 등 더 이상 선수와의 신뢰관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장애인 동계체전 3일차... 전북, 크로스컨트리스키서도 선전

권상현, 대회 3관왕 달성

종합 10위를 목표로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전북도 선수단은 대회 3일차에서도 금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하며 순항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 485명, 임원 및 관계자 480명 등 총 965명 참가했다.

특히 참가 선수들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며 경기를 펼치고 있다.

전북도 선수단은 이날 크로스컨트리스키 3km Classic 경기에서 금, 동, 동을 획득했다.

바이애슬론 경기에 이어 권상현(지체/입식) 선수는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또 남자시각각부 김장민(제갈항인) 선수는 동메달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신인 최선용(양동호) 선수가 5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이와 함께 남자자적부 신인선수 최지훈 선수가 9위, 방진석 선수가 11위를 차지하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편, 16일엔 6km Free 경기에서 권상현 선수가 출전하면서 대회 4관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김장민(제갈항인) 선수의 입상도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제19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크로스컨트리스키 종목에 출전한 전북도 선수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 신규직원 선발

24일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전산·학예연구사·건축

박물관 해설 등 5개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승환)은 2022년 1차 공개채용을 진행하며 일반행정과 전산 학예연구사, 건축, 박물관 해설 등 5개 분야에 총 13명의 신규 직원을 선발한다.

이번 채용은 ‘일반행정’과 ‘제한경쟁’으로 나눠 일반행정 분야에는 일반행정, 전산, 박물관 해설 등 5명을 제한경쟁분야에는 자격증과 경력 등 전문역량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산 학예연구사, 건축 등 8명을 채용한다. 또한 사회형평 채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에서는 일반행정 박물관 해설 등 2명을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3월 1일 17시까지이고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면접전형 등을 거쳐 4월 18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4월 25일 임용 예정이다. 장애인과 태권도유단자, 무주·전북지역 지원자 등은 서류 심사에서 우대된다.

특히 태권도진흥재단은 2월 24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태권도원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채용 전반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특기 태권도 활성화와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 발전에 함께 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며 “세계 속으로 뻗어가고 있는 K콘텐츠의 원조인 태권도와 함께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진흥재단 누리집 알림마당 내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